



1920년 4월 1일 창간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서울 12~23도 경기 10~24도

2008년 5월 7일 (음력 4월 3일) 수요일 단기4341년

The Dong-a Ilbo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www.donga.com 제26991호 40판

5월, 자녀의 꿈을 지켜줄 특별한 선물!
우리아이 행복 플랜
 문의: 1588-6363

세계 10위권 투자은행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정부 "국내 기업서 CB 편법인수... 거액 차익"

외국계 투자은행(IB) A사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B2면에 관련기사

한국 정부가 금융관련 범죄 혐의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에 있는 외국인 직원들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A사는 세계 10위권의 IB로 공신력이 있어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에 불공정한 론스타와는 차원이 다르다.

최근 외국계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범죄 혐의와 조치내용

헤르메스펀드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
▶ 지난해 말 법원에서 무죄 선고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 올해 2월 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유죄 판결

리먼브러더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융수사 행위
▶ 이달 전직 임원 구속

A투자은행
코스닥 기업 등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
▶ 현재 금융감독 당국에서 조사 중

금감원은 A사의 내부거래, 주가 조작 등 다른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자들의 부당이익 규모에 대해 "수십억 원 차익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A사 및 기업들의 조직적 범죄행위인지, 또는 일부 직원의 단순한 개인비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한국 등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세계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글로벌 IB다. A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증권사불위위원회를 열어 A사 및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문자 괴담' 초등생까지 무차별 유포

'17일 등교 거부' 휴대전화 메시지 급속 확산
"아빠에게 광우병 물어봐라" 행동지침까지
"17일 무단결석 제재" 오늘 긴급 교육감회의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백모(11) 양은 이를 전 친구에게서 두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먹었다' '쇠고기 수입하면 한국은 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백 양의 부모는 딸의 친구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유언비어의 일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다.



6일 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시위'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최근 인터넷에는 한 초등학생이 이달 초 썼다는 '광우병'이라는 제목의 그림일기를 찍은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일기에는 '이건 어떻게 알았나? TV로 본 걸까? 대통령이 OO보다 못한 것 같네'라며 일기를 쓴 아이를 칭찬하는 교사의 코멘트도 적혀 있다. 이 사진에는 '초등학생도 광우병의 위험성을 아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댓글이 붙으며 정부를 조롱하는 용도로 유포되고 있다. ▶A4·5·12면에 관련기사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각종 '사회적 괴담(怪談)'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종교교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괴담이나 휴대전화 문자 괴담에 노출돼 왜곡·과장된 정보를 사실로 믿고 행동하는 일도 눈에 띈다.

최근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포털인 야후쿠러기, 유니네이버 등에도 '광우병 괴담' '독도 괴담' '인터넷종말 괴담' 등 이른바 5대 인터넷 괴담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글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초등학생이 올렸다가보다는 '정부 정책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 초등학생을 가장해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어린이를 위해 만든 사이트인 '어린이 청와대' 사이트에는 "우리는 미친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벌써 죽고 싶지 않아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내용이나 말투가 초등학생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유언비어 유포에서 더 나아가 '3월 17일 단체 등교 거부(또는 휴교)' 'xxx브랜드 10일 동안 먹지 말기'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아빠와 딸의 대화'라는 제목의 한 행동지침은 부모에게 "난 지금 광우병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내가 안심할 수 있게 아빠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 나를 설득시켜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 지침은 "애들아, 너희가 어려서 국가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개인(부모)을 자극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야"라는 표현으로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45)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광우병에 대해 설명해 달라"며 이 행동지침을 내보이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대부분의 부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잘못된 편견을 실제로 믿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긴급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초·중·고교생 사이에 광우병 괴담이 유행하고 일부 학생이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과부는 "5월 17일 초·중·고교 휴교설이 근거 없이 퍼지고 청소년들이 대거 집회에 나서는 것에 대해 김도연 장관이 시도교육감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17일 무단결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제재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계기수업과 학생 지도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내일 어버이날... 미리 안부전화 드리세요 긴 시간 어깨를 지누른 삶의 고단함도 이 순간만큼은 훌훌 털어버렸다가 5월의 화창한 햇살 속에 펼쳐진 흥겨운 연주와 공연에 절로 웃음이 난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짝 웃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당정 "광우병 발생 위험뎀 재협의 요청"

농식품부 "재협상은 불가능" 거듭 밝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A6·8면에 관련기사

민동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관련 2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타결한 것이라 특별한 상황 없는 재협상은 물론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별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경우 우리가 미국 측에 개정요구를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협의를 검토하자고 했고 정부는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당정이 혼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모든 식단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우병 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학교 단체급식도 중단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면서 "(정부 협상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재협상에 해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협상 전과 후의 정부 자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靑 "인터넷 여론 편향성 근본대책 필요"

검경, 괴담유포 사법처리 검토

검찰과 경찰은 6일 광우병 문제 등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 중고교생을 상대로 '17일 단체 휴교 시위'를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집중 확산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전

파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이승현 기자 ddr@donga.com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정년 검정출신 법원법관 13년(법정)에서 대표변호사로 세 출향하고 하오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 서주출생 김현 문성출생
- 대전고(56학), 서울법대(77학번)
- 제2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14기)
-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서울지검(특수·간행·형사)
- 서울지검 총무부장, 형사4부장(경제전담)
- 총주지정장, 전주지정장
- 서울고검, 대전고검
- 대검 형직정보2팀장
- 법무부 검찰1과, 공보관(97~99)
-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양 재택 올림

사무실 : (135-9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클리닝 5층(르네상스호텔 옆)
 전화 : 02-527-0033(대내), 010-4994-2020
 개업소년 : 2008. 5. 15(목) 17:00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인터뷰 A3면

★ 금일 (7일) 1순위 청약 ★

미아, 길음, 장위 3대 뉴타운

新강북 뉴타운의 중심!

동일하이빌 New City

[본지 36면 참조] 1577-1552

인생을 愛 전하는 정관장

[건강가득 사랑가득] 대잔치
 2008. 5. 1~5. 21(21일간)

- 행사1** 구입금액대별 시은품 증정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구입금액별로 시은품을 드립니다
- 행사2** 어린이 영어캠프 및 경품추첨
추첨을 통해 어린이 영어캠프 참가 기회 및 경품을 드립니다
- 행사3** 홍이장군, 울든 구입 시 시은품 증정
홍이장군, 울든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스위트바질허브를 드립니다
- 행사4** 멤버스 신규가입고객 시은품 증정(4.14~5.21)
행시간 중 제품을 구입하신 정관장 멤버스 신규가입고객께 총상원 10표를 드립니다

▶ 선물카드 사용 혜택 : 2~3개월 무이자 할부(BC/신한/KB/삼성/현대 및 1% 포인트 적립(BC/신한))

▶ 정관장 멤버스 홈페이지(www.kgcmembers.or.kr) 신규 오픈(5월 10일)

▶ 신제품: 홍심의 푸리를 그대로 담아낸 '정관장 홍심수출력' 출시

어린이날 · 어버이날 · 스승의 날 · 성년의 날 · 부부의 날
 사랑을 전하기에 5월만큼 좋을 때가 있을까요?
 6년근 명품홍심 정관장으로 당신의 특별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일을 여는 힘
정관장

(주)한국민심공사 고객상담실 1588-2304 | 080-041-0303